

국훈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공로상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국훈 교수가 최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공로상을 수상했다.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국훈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화순전남대병원을 역임하며 무균실 병동을 개설, 혈액종양을 가진 소아와 성인환자들의 중증 감염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는 특히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소아 조절모세포이식을 성공시키는 등 국내 조절모세포 이식분야 발전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지난 2004년부터 7년간 제2대 전남대병원 조절모세포이식센터장을 역임했으며, 많은 우수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황미연 소방장 광주 여성 최초 화재조사관 자격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나경문) 대인119안전센터 황미연(38·사진) 소방장이 광주지역 여성 소방관 최초로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했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화재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화재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도입된 국가자격제도다. 화재조사관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발화과 연소 확대 원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황 소방장은 전문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을 받은 뒤 화재조사과 감식, 원인판정에 대한 1차 필기와 2차 논문형 평가에 최종 합격,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여성플라자 '성별영향 분석 평가 포럼'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손순금)는 최근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여성플라자 제공)

새마을금고 '한마음어울림 체육대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동욱)는 최근 화순 하니문화스포츠센터에서 99개 새마을금고 임·직원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광주전남새마을금고 한마음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수다는 생활의 지혜 담긴 힐링이예요”

'목포 맘들의 수다방' 카페지기 윤선영씨

“수다가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하지만, 남성들이 흡연하는 이유나 수다 떠는 거나 같아요. 수다 속에도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결국 수다는 ‘생활의 지혜가 담긴 힐링’이라 할 수 있어요.”

‘목포 맘들의 수다방’ 카페지기 윤선영(38)씨는 “수다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며 애잔론을 폈다.

지난 2007년 5월 개설된 ‘목포 맘들의 수다방’(이하 목수방)은 10월말 현재 회원 수가 4만3499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회원들은 주로 20대~40대 엄마들이다.

목수방은 엄마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주제로, 서로 생각들을 공유하고 선배들의 지혜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최적의 공간이다.

그는 “아이들 육아문제나 시대과의 갈등 등이 가장 많다”며 “특히 타지에서 이주해 온 새댁들이나 새내기 엄마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 속앓이만 하다가 카페에 들어와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도 해소하고 친정 부모처럼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게 그가 전하는 인기의 비결이다. 또 질문을 올리

회원수 4만명... 대부분 젊은 엄마

프리마켓 통해 이웃사랑 실천

포크밴드 활동 백혈병 환우 도와

면 회원이 많아 답이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휴가비나 성과금이 나오면 상세한 글들이 올라오다 보니 남편들이 아내 몰래 가윗돈이나 비자금을 챙기기도 어렵다.

그는 “간혹,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라온 글이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비방이 담겨있을 경우 그 경계가 애매해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목수방은 단순 온라인뿐만 아니라 나눔 프리마켓, 세계마담페스티벌 프리마켓, 힐링 체육대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보람을 찾는다. 지난달에도 홈플러스 목포점에서 프리마켓을 개최해 수익금 230만원을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또 ‘노래하는 선영이’로 더 유명한 그는 포



크 밴드인 ‘곰강’ 활동을 통해 백혈병 환우를 돕는 일도 한다.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백혈병 환우 돕기 자선공연을 펼쳐 3차례 기부했다. 최근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색소폰 연주자를 돕기 위해 공연을 하고 있다.

목수방의 정기모임(정모)은 매월 세 번째 화요일, 보통 정모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100여명 정도. 이처럼 정모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가위바위보 게임 때문이다. “정모 때 자신들이 아끼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와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이기는 쪽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관계로 기업과 정치인들로부터 유혹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회원들간 불협화음이 빚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득이하게 기업 협찬을 받고 있지만 정치 쪽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정치관련 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삭제한다. 협력업체는 평균 20~30개. 매월 한차례 협력업체 사장단들 모임도 열린다.

그녀는 “회원들이 많으니 허위 소문이나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힘들고 슬플 때가 종종 있다”며 “자부심을 갖되 권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강소독립공간인 문화센터’를 설립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오프라인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장애인 생산품 함께 나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캠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지사장 채정환·이하 공단)는 최근 ‘따뜻한 일터 만들어주기 모임’과 함께 이들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는 ‘함께 나눔 캠페인’을 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 단체인 이 모임과 ‘장애인근로자의 밤’도 열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말한다.

지난달 28일 애프터엔(주)에서 열린 나눔 캠페인에서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중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주)경동(대표이사 강병영), 동양화학(대표 박호준), (사)화순사랑(대표이사 김용문) 등에서 수건(베스타울), 장화 및 슬리퍼, 의류, 김 등을 나눠줬다. 또 함께 열린 ‘장애인근로자의 밤’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하여 포



상했다. 채정환 지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인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단 광주지사 관할 표준사업장은 총 13개 업체이며, 평균 4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올해 안에 2개 업체가 추가로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될 예정이어서 15개 업체가 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 지리산 둘레길 문학기행

‘광주·전남 특’ 독서클럽 회원과 함께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이하 광주·전남 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지리산 둘레길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광주·전남 특’ 독서클럽 회원 40여 명과 함께 전북 남원 지역 지리산 둘레길과 훈불문학관을 탐방했다.

이번 문학기행 코사인 지리산 둘레길은 ‘광주·전남 특’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1그램의 용기’의 저자 한비아 작가가 추천했다. 한비아 작가는 지난 9월 24일 전남대학교에 열린 ‘한책 특 콘서트’에서 “최근 백두대간 종주를 마쳤다”면서 “문학기행 시 백두대간 일부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독서클럽 회원 김주완(목포 덕인고 2학년) 학생은 “평소 존경하는 한비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다고 하니 더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다”면서 “이번 기행은 한 곳에 정체가 있던 저에게 더 멋진 곳으로 새롭게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고경애씨 아들 진행우(산호농협)군 한승일(곡성군의회 사무과장)·김옥순씨 딸 민경(산호농협)양=7일(토) 오전11시 50분 광주시 서구 능성동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

▲최용복·공영자씨 아들 기영군 이광호·김양남씨 딸 연민양=7일(토) 오전 11시20분 광주시 서구 광전동 알렌시아웨딩컨벤션(구 갤러리2) 2층 스파이어홀.

▲박종안·김미자씨 아들 상현군 장광중·조순희씨 딸 지현양=8일(일) 오전 11시50분 광주시 서구 상무리컨벤션웨딩홀 2층 자스민홀.

▲이병기·김영자씨 아들 지훈군 김진·정영애씨 딸 유아양=15일(일) 낮 12시40분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1층 사넬홀.

중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 중친회 재광 이사회=5일(목)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맛집 한겨레’ 문의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동창회

▲목포고등학교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 월례회=5일(목)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강산식당 062-224-0808.

▲광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제39회 동창회(회장 김근우)=14일(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6 아벤트리호텔 010-9473-299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에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

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직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951-9461.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활동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활동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가능항상지원팀 062-

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유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마사지, 요리만들기, 유아용품 만들기, 유아산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

집 062-267-3700.

부음

▲심재경씨 별세 현기·남석·왕기·영기(광주시 동구 흥보계장)씨 부친상=발인 4일(수) 광주장례식장 특1호실 062-942-4400.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201호 故김송기 님 (남/64세)</p> <p>子/子婦: 김남경/김승현 女/婿: 김지영/김중혁 未亡人: 오종근 *발 인: 11월 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p>	<p>401호 故이학중 님 (남/68세)</p> <p>子/子婦: 이세진/강금옥, 세원/박혜경 女/婿: 이순복/김민성 *발 인: 11월 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p>
<p>402호 故문호식 님 (남/88세)</p> <p>子/子婦: 문진규/김정미, 석민/이연남 女/婿: 문영숙/하상민 *발 인: 11월 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p>	<p>101호 故유정준 님 (남/88세)</p> <p>子: 유정선/양미순,길호/영희,정영란 女/婿: 문영숙/하상민 *발 인: 11월 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p>
<p>102호 故박정순 님 (여/99세)</p> <p>子/子婦: 최영삼 *발 인: 11월 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p>	
<p>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p>문의 (062)227-4000</p>	